

일주문

동국인 수계법회 봉행
도입 동국대 경주캠퍼스 정
각원장은 23일 동국대 문무관
에서 패물탱화 점안식과 동국
인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독일·미국 등지 순회법회
법륜 정토회 지도법사는 6
월 7-20일 독일과 미국 등지
에서 '대승보살의 길'을 주제
로 순회법회를 봉행한다.

대구·경북 평불협 대표에
정적 경산 인홍사 주지는 10
일 대구불교방송에서 열린 평
불협 대구·경북본부 창립식
에서 상임대표로 취임했다.

종합 일간지 '메트로' 창간
이규형 메트로 사장은 31일
타블로이드 판형 종합일간지
메트로를 창간한다. 메트로는
주 5회 무료 배포된다.

키벨 워너 교수 초청 강연
김선근 인도철학회장은 24
일 동국대에서 린던대 키벨
워너 교수 초청 '유업에서 본
불교' 주제 강연회를 열었다.

본사 경영관리국 김학표 차장은
6월 2일 오후 3시 서울 영등포구청
역 인근 문화웨딩홀에서 노회진 씨의 화족을 밝
힌다 02675-6000

“유치인들에 참된 삶의 길 제시”

밀양경찰서 경승실장 선운 스님



“유치인들과 경찰공무원들에게
불법의 가르침을 전해 진실한
삶의 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15일 밀양경찰서 경승실장으로
취임한 선운밀양 석공사 주지·
사진 스님은 경찰포교의 중요성
을 강조하며 계획을 밝혔다. 선운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며 “경찰서
포교는 순간의 실수로 고통을 겪
고 있는 유치인들과 그들의 교화
를 담당할 경찰공무원들을 함께
불제자로 만드는 일이므로 모든
사부대중이 함께 동참해야 할 중
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새 법
당은 밀양 표창사 주지 혜오스님
의 불상과 평화 보시로 장엄됐으
며 월 1회 정기법회를 열게 된다.
또한 한글대장경을 비치, 유치인
과 경찰공무원들의 신심을 다질
수 있도록 배려할 방침이다.
87년 시작된 밀양경찰서 포교
는 91년 전임 경승실장인 혜봉스
님의 취임으로 활성화됐다. 이후

뿔에 불자회 만들어 포교 활성화

스님은 “유치인들을 위한 교화 활
동뿐 아니라 밀양경찰서내에 불
자회를 만들어 포교 활동을 보다
활성화하겠다”는 각오다.
법당 개인법회와 함께 열린 취
임식에서 스님은 “진실한 인간으
로 돌아가게 하는 것, 팔정도를 실
현하는 생활인으로 거듭나게 하
는 것, 나눔의 조화를 성숙시켜 가
는 것이 경찰서 포교”라고 포교의

매년 우수 경찰관에 대한 표창과
격려금을 전달하고 밀양경찰단연
합회와 함께 유치인 생일잔치 등
을 주관해왔다.
선운스님은 “부처님의 바른 가
르침을 전하는 것이 유치인 교화
의 근원이 될 것”이라며 “경찰서에
불심을 심는 경승실의 포교사업에
힘을 결집해 줄 것”을 호소했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a.com

“자원봉사는 우리세계 눈뜨게 해”

인도 자원봉사활동 마친 선주 법사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자원봉
사활동은 우리가 사는 세계에
눈을 뜨고 자기가 할 일을 발견하
는 계기가 됩니다.”
인도 JTS 실무 총책임 소임을
맡았던 선주법사(34·사진)가 6년
동안의 자원봉사 활동을 마치고

인도에 머물며 봉사활동을 시작
했다.
“인도봉사를 할 때 가장 어려
운 일이 어린이들의 천민의식을
없애는 것”이라는 선주법사에게
인도는 제2의 고향이 됐다. 인도
인들과 함께 생활하며 그들이 앓
은 풍토병, 제때 일을 하는 법이
없는 인도인 노동자와의 갈등 등
을 겪으면서 인도인보다 더 인도
인다워졌다는 것.
선주법사는 이제 정토법당에서
신행상담 소임을 맡게 됐다. “6년
동안의 봉사가 끝나고 귀국하니
지금 한국에서 유행하는 말, 컴퓨
터 사용법 등을 익히는 것이 가장

아프간 등서 봉사활동 더 하고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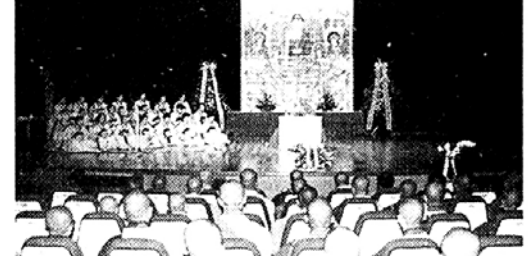
최근 귀국했다. 지난 1월에 발생
한 설성봉 세 피살 등 무장강도 사
건을 비롯해 여러 번의 힘든 위기
를 넘기며 선주법사는 인도 통계
스외리 지역 석가족 마을에서 지
바카 병원과 기술중학교 건립, 마
을 유치원 운영 등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었다.
93년 순례단과 함께 4차례 인도
를 방문한 선주법사는 95년 아예

큰 격정”이라고 토로했다.
선주법사는 앞으로 아프가니스
탄 등 인도 주변국에 대한 봉사활
동을 하고 싶어 한다. 6년 봉사 경
험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싶
은 것이다. 선주법사는 또 “젊은
청년들이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자원봉사를 통해 세계에 눈을 뜨
길 바란다”며 동참을 촉구했다.
강유신 기자 shanmok@buddhapa.com



도선사 주지 혜자스님 취임

도선사는 23일 경내 호국참회원에서 혜자스님 주지 취임법회
를 봉행했다. 이날 정대(조계종 총무원장)·종법(종양승가대 총
장)·정화(실천불교승가회 의장)·수경(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스님 등 1천여명이 참석했다. 혜자스님은 취임사에서 “정당스님
의 가르침을 따르고 실천하는 제자로서 그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주BBS 개국 7주년 법회

광주불교방송(사장 이상진)은 10일 광주 KT정보센터에서 개국
7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조계종 원로의원 보성(송광사 방
장)·현운(항원사 조실) 스님 등 6백여명이 동참한 이날 법회에서
보성스님은 “호남지역의 불교정도를 위한 불교 홍보에 더욱 매진
할 것”을 당부했다.
주용직 광주지사장



부불신도회 노숙자 무료급식

부산불교신도회 복지환경보위위원회(위원장 이기표)는 12일 부
산역 광장에서 실시 노숙자 1200명을 대상으로 무료급식을 실시
했다. 이날 동참한 분과위원 30여명은 어려운 이웃과 함께 봉족의
미를 되새겼다. 부산불교합창단연합회도 16일 부산역 광장에서
무차공양법회를 열고 1,700명에게 무료급식을 실시했다.



영남불교대·관음사 창건 10돌 법회

대구 영남불교대학·관음사(주지 우해)가 15일 법당에서 창건
10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대구 불교신행단체연합회 박은식 회
장 등 1천여명이 동참한 이날 법회에서 우해 스님은 “10년을 한결
같이 사람과 함께한 학생·신도들에게 감사한다”고 말했다. 10년
과정의 심정법사 수료증을 받아온 창건 멤버 48명의 신도들.

태고종 춘명대종사 입적
원각사서 전북총무원장 봉행
태고종 승정 춘명
(春明)대종사(사진)가
19일 주석하고 있던
김제 원각사에서 입적
했다. 세수 83세 법랍
75세.
1919년 전북 익산에
서 태어난 춘명스님은
8살 때인 27년 원주
송광사에서 연성스님
을 은사로 득도했다.
금산사 강원 대교과를
수료하고 34년 문경
대승사 선원에서 안거
이래 7하인거를 성
만했다. 스님은 전북
불교영산보존회장,
태고종 전북교구 원로
위원장 등을 역임하고
지난 98년 태고종 승정
에 추대됐다. 춘명스
님은 특히 1949년 불교
교도회를, 65년에는
불교청년회와 학생회
를 조직해 포교에 진력
해 왔다.
춘명대종사의 영결식은
21일 김제 원각사
에서 태고종 전북총
무원장으로 봉행했다.

“불교음악 작품화 하고 싶어”

월드컵 축하곡 작곡한 박은선 씨



지난해 소아마비 장애인으로 이
화여대에서 음악이론으로 첫 박사
학위를 받아 화제를 모았던 한양대
음대 강사 박은선(51·사진) 씨가

에서 왕후지예 대한 일화속에 등
장하는 피리의 명인입니다. 왕후
지가 환이의 소문을 듣고 만나고
싶어 하다가 마침내 배타는 옥방
에서 우연히 조우합니다. 두사람
은 한마디도 나누지 않고 피리 소
리를 듣고 싶어하는 이에게 피리
를 들려주고, 듣고 싶었던 소리를
듣는 것으로써 두 사람 사이의 교
감은 충분히 이루어진 것이지요.
이 아쉽고 모자란듯한 여백의 아
름다움을 작품화 한 것입니다.”
창작의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

초연곡 ‘환이소리’ 음악계 주목

작곡한 환이(桓伊) 소리’가 월드컵
축하 초연곡으로 24일 대전시립 연
적정 국악원에서 무대에 올려졌다.
학위수여식후 첫 창작곡으로
음악계의 주목을 모은 이 작품은
여백의 아름다움을 테마로 피
리·대금·가야금의 세 주제가
어우러진 국악이다.
“환이는 허균이 엮은 <한중록>

은 법정스님의 칼럼을 읽고 나서
부터라고. 불현듯 가장 가까운 독
실한 불자 친구의, 여백의미를 담
은 삶의 자세를 떠올리면서 박 씨
는 이 작품에 매달려 2개월간 두문
불출 작업했다. 꼭 해보고 싶은
작품은 본격적인 불교음악이라는
박씨는 매일 주위 사람들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다. 이런 명에기자

“더욱 정진...4년공백 메울터”

종로법우회 재창립 최병문 회장



“99년 이후 4년의 공백을 메운
다는 각오로 더욱 열심히 정진하
는 모임으로 키워나가겠습니다.”
9일 재창립한 서울 종로경찰서

모임에 자주 참석하지 못하는 처
지에 있는 아쉬움을 토로한 최 회
장은 “다른 경찰서 보다 더 많은
회원과 더 돈독한 신심을 갖는 모
임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지도법사인 조계사
무각스님을 모시고 조계사 신도
들과의 합동법회도 추진할 계획
이다. 이를 통해 회원들간 돈독한
정을 나누고 신심을 다져 내실있
는 모임으로 키워겠다는 각오다.
최 회장은 97-98년 동대문경찰
서 근무시절 불교회 회장을 맡는

조계사 신도들과 합동법회 추진

법우회 최병문(50·수사2계장·
사진) 회장은 회원들의 신행활동
권장은 물론 회원 확대에 나서겠
다고 밝혔다. 서울의 중심지이던
서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조계사
인근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을 최
대환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상황 근무와 중요 업무 등 치안
수요가 많아 회원들이 정기적인

등 모범적인 신행활동을 보여
왔다. 지금도 부인과 함께 경기도
광주에 소재한 극락사 등 사찰에 다
니며 신행활동을 펼치고 있다. 부
모의 영향으로 대학에 다니고 있
는 두아들도 불교에 귀의해, 최 회
장 가족은 매주 일요일이면 함께
법회에 참석하는 등 단란한 가정
을 이루고 있다.
박병영 기자

3일 안에 깨닫는다
수련과정
깨달음에는 정해진 시간이 없습니다.
수년 동안 수행에도 얻기 힘든 깨침을 3일 안에 이룰 수 있습니다.
그 성취와 결과는 매우 분명하며 새로운 삶의 길이 열립니다.
부처님 당시 '마하가섭'은 8일만에 지혜의 눈이 열려 아라한
(깨달음)의 경지에 도달했습니다.
중국의 백림사(허복성 조현)와 보봉사(강서성 정안현)에서는
이미 찰나(돈오)에 깨치는 3시간의 수행법이 있어 왔습니다.
● 쉬고 싶지만 쉬지 못할 때
● 일상 찌든 생활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
● 번민, 갈등, 괴로움과 집착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
● 삶의 의미와 목표를 찾기 못해 방황할 때
● 부득할 없이 사는 지혜를 얻고자 할 때
체험하는 만큼 더 자유롭고 더 행복하다.
■ 무명 무상과 삼매를 언제나 이룰 수 있는 능력
■ 생사의 두려움에서 초월할 수 있는 능력
■ 영가들의 땅에서 벗어나 스스로 전도 확인할 수 있는 능력
■ 꿈의 시달림에서 예소
(033) 435-3166, 435-6166 FAX 435-8166
춤음수형 心田 대광사

오가피를 아신다면 이 글을 꼭 읽어보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국내최대오가피재배 생산기업입니다.
참으로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지금 대한민국 땅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
실을 아십니까?
근래들어 유혹적으로 오가피 혹은 가시오가피를 사용했다는 제품이 생겨나고 있습니
다. 국내에 이렇게 많은 제품들이 생산될 수 있는 원료가 없는 것을 알고있는 저로서는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이들제품들을 무작위로 구입
하여 분석해왔습니다. 그결과를 너무나 경악스러웠습니다. 특히나 라오가 아닐까
재차, 삼차 분석해왔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아칸토사이드 D(Acanthoside D = Eleutheroside E)란 성분은 오가피의 지표물질
로 삼고있는 오가피의 대표적인 성분입니다.
이 성분이 들어있지 않은 오가피의 제품은 가짜입니다. 또 이 성분이 얼마나 들어있나
에 따라 정말로 체내로 원료를 사용했는지, 또 원료를 얼마나 사용했는지 알 수 있습
니다. 그동안 가시오가피가 좋다고 선전해오던 업체들은 이구동성으로 가시오가피가
다른 오가피들보다 월등하게 좋으며, 그 이유로 아칸토사이드 D가 더 많이 들어있다는
주장을 하곤했습니다.
만약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그들이 만드는 제품에 체내제품보다 이 성분이 훨씬 많이 들
어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또 오가피가 비싼이유가 없다면서 저의제품보다 훨씬 싸다고 선전하는 제품들이 연일
신문지상에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 저의제품과 같은 양의 오가피를 섭취할수 있으
려면 표에서 보실수 있듯이 몇배에서 몇십배나 되는 양을 더 먹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
이 신통한가요?
이 신통결과에 승복할 수 있는 업체에서는 시중에서 무작위로 구입한 귀사의 제품과 저의
제품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나 식품의약품안전청등 국가기관에 공동의뢰하여 공적으로
실험할 것을 제의합니다. 참고로 이곳에 게재된 실험결과는 저의 실험실만이 아니라 국립
대학교 2곳, 제약회사 1곳, 국가공인기관 1곳에서 실험한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소비자들이께서는 오는 계절엔 저제품에 다른 오가피제품이 있다면 저에게
실험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무료로 성분분석을 하여 그 결과를 알려드리겠
습니다.
저의 오가피 또는 가시오가피를 수확하지도 않으면서 오가피제품이라며 판매하는 제품
이나 겨우 몇천원짜리 불리한 제제지를 몇천원, 몇십만원으로 부풀려 광고하는 제품, 북
한산양생이라 훨씬 싼다는 제품들에 더이상 현혹되지 마십시오. 품질은 정직했었습니
다. 앞으로 국내의 모든 오가피제품을 검사하여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국내최대오가피재배 생산기업입니다.

문의전화 (02)447-9114